사찰에 햄버거 자판기가…이색시도 화제

혼카쿠지에 설치된 '운세 뽑기 햄버거 자판기'

수익 일부 지역아동에 사용
"지역공동체 핵심사찰" 희망
사찰은 즐거운 곳 인식 바램

박영빈 객원기자

일본 한 고찰에 햄버거를 파는 자판기가 등장했다. 일본의 '히로시마 뉴스 TSS'는 2월 24일 주지스님이 직접 고안해 설치했다는 자판기에 대한 이야기를 전했다.

400년 이상의 역사를 자랑하는 혼카쿠지(本覺寺)는 일련종 소속 사찰로 히로시마 시내 한가운데 자리 잡은 도심 속 도량이다. 지난달 말, 경내 마당에 설치된 '운세 뽑기 햄버거 자판기'가 SNS를 비롯해 지역에서 화제를 낳고 있다.

자판기를 설치한 혼카쿠지의 주지, 와타베 코유 스님은 "지역에 재미나고 밝은 화제를 일으키고 싶었다"며 "사찰과 햄버거라고 하는 그리 어울리지 않을 것 같은 것이 하나의 재미를 줄 것이라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찰에서는 운세 뽑기와 함께 기념품을 살 수 있도록 한 장치가 간혹 있는데 이것을 햄버거로 바꿔 만든 것"이라고 설명했다.

스님은 자판기를 고안하고 실현하기 위해 직접 각지의 전문업자를 직접 찾아가 제작을 의뢰했다. 코로나19사태가 오미크론 변이 등으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가운데 코유 스님은 "이러한 시도로 사찰이 즐겁고 재미있는 곳으로 인식되면 기쁘겠다"고 전했다.

경내에 설치된 햄버거 자판기 수익 일부는 지역 아동들을 위해 회향될 예정이다. 혼카쿠지는 2016년부터 부모의 맞벌이 등으로 혼자 식사를 하는 아동들을 위한 '어린이 식당'을 운영하고 있다. 자판기에서 판매되는 햄버거로 생겨난 이익이 아이들을 위한 따뜻한 식사로 다시금 환원되도록 순환을 만든다는 개념이다.



경내에 설치한 햄버거 자판기를 소개하는 와타베 코유스님. **사진출처=히로시마 뉴스 TSS 캡쳐**

코유 스님은 "다양한 수요에 사찰이 대응할 수 있는 방향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며 "누구든지 가볍게 들릴 수 있는, 지역 공동체의 핵심이 되는 사찰이 되길 바란다"고 진행 중인 프로젝트들을 설명했다.

네티즌과 지역주민들의 반응은 뜨거웠다. 한 지역주민은 "지역에서의 소문을 듣고 직접 방문해 봤다. 햄버거의 맛은 솔직히 평범했지만 수익이 아이들을 위해 돌아간다는 말에 기분 좋게 먹을 수 있었다"고 후기를 남겼다. 또 다른 사용자는 "생각보다 가격 설정이 적절했다. 사찰에서의 햄버거라는 재미도 있고, 또 지역을 위해 환원된다는 점이 많이 알려져서인지 금방 품절되고 있다"고 전했다.

뉴스를 보고 타지역에서 방문했다는 네티즌은 "사찰이라고 하면 떠오르는 국수나 떡 같은 음식으로 자판기를 만들어도 재밌겠다고 생각한다"며 다양한 의견을 내놓았다.

日, 사찰과 신도 간 '보시금 문제' 논란

신도 "정확한 금액 알려주길"
금액 명시 필요하다는 주장도
스님 "보시 개념 바로잡아야"
현대 가치관 맞춘 개선 시급


신도가 사찰과 스님에게 공양하는 '보시금'의 액수를 둘러싸고 일본 불교계에 논란이 일고 있다. **사진출처=프레지던드 온라인**

사찰이나 스님에게 감사의 의미로 공양하는 보시금. 최근 일본에서는 이 보시금에 관한 문제가 논란이다. 특히 시다림이나 49재와 같이 고액의 보시금이 오가는 법요에 대해서 사찰과 신도 간의 의견차가 큰 것으로 밝혀졌다. 일본의 '프레지던트 온라인'은 2월 27일 이 보시금 문제에 대해 특별보도했다.

보시금 문제를 조사한 종교전문 저널리스트 우카이 히데노리 스님은 "과거 마을 공동체나 친인척만으로만 이루어졌던 사회에서는 보시금에 대해 '암묵적 동의'로 합의된 금액이 있었다"며 "그러나 인터넷 보급 등으로 다양한 정보가 공유되면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밝혔다. 실제 최근 일본 불교계에서는 이러한 보시금에 대해 신도들이 "시세를 알 수 없다", "정확히 원하는 금액을 알려주길 바란다"며 사찰 측에 문의하거나 항의하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됐다. 최근 실시된 설문조사에서 신도들이 바라는 것으로 "보시금액을 명시해 주길 바란다"는 결과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왔다.

이에 대하여 교계의 반응도 상반 되게 등장했다. 설문조사에 응한 스님은 "먼저 '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인식이 바로 잡혀야 한다"며 "보시는 법요나 기도에 대한 대가성 물질이 아닌, 출가자와 재가자 간에 서로 기쁘게 주고받는 희사(喜捨)라는 것이 대전제"라고 밝혔다. 이에 주장에 찬성하는 스님들은 "보시금의 금액을 명시하는 것에 찬성하냐는 질문 자체가 불교의 교리적인 해석과 상충된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일부 스님들은 "출가자로서 보시라는 개념을 신도들에게 설명하고, 편할 대로 희사해 달라고 설명해도 '그래도 필요하신 금액을 말해주시는 게 감사하다'고 듣는 것이 대다수"라며 "현실적인 부분에서 금액명시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신도들도 사찰 재정에 대해서 알 수 없기에 보시금을 정하기 어렵다는 의견이다. 한 응답자는 "사찰의 경영상황을 공개해 준다면 그에 대한 필요성 등을 고려해 적정선을 낼 수 있다. 정기적으로 사찰에 보시를 하지 않는 만큼, 한 번에 보시한다는 개념으로도 생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부정적인 의견도 상당했다. 한 여성은 "부모님 장례와 천도재에 상당한 고액의 보시금을 희사했다. 대략 대졸자의 초임 2개월분의 금액이었다. 정성껏 재를 올려준 스님껜 감사하지만, 내 자식에게는 도저히 지불하라고 말할 수 없다"며 난색을 표했다.

우카이 스님은 보시금 문제에 대해서 "일본 불교 특유의 사후 고인에게 붙는 계명(戒名)도 문제점이 많다"며 지적했다. 전통적으로 일본에서는 고인에게 계명을 수여하고 이를 영가의 이름으로 사용하는데, 생전의 업적이나 영향력에 따라 달리하는 계명이 언제부턴가 영가의 지위를 나타내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다는 것이다. 실제 계명의 급에 따라 보시금 액수 차이도 상당한 것으로 드러났다.

스님은 "사찰과 신도 간의 전통적인 유대와 풍습을 지키면서도, 현대사회의 가치관에 맞춘 개선책이 시급하다"며 "지금과 같은 상황으론 장차 불교가 지켜온 위안과 평화라는 가치가 현대에 필요 없어 질 수도 있다"며 걱정을 비쳤다.

박영빈 객원기자

달라이 라마 "비폭력만이 유일한 길"

2월 28일, 전쟁 발발 5일 성명
"21세기 대화의 세기로 나가야"


달라이 라마는 "갈등과 불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갈등과 불화는 대화를 통해 해결될 수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는 상호 이해와 존중을 통해 이뤄집니다."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2월 28일(현지시간) 자신의 공식 채널 '달라이라마 닷컴'에서 "나는 우크라이나의 전쟁 사태로 인해 매우 큰 슬픔에 잠겼다. 하루빨리 우크라이나가 평화를 되찾길 바란다"며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에 대한 성명문을 내놨다. 이 성명문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5일 차에 나온 것이다.

달라이 라마는 성명문에서 "전쟁은 시대착오적 행위"라며 "비폭력만이 유일한 길"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다른 인간들을 우리의 이웃이자 가족으로 생각함으로써 인간 공동체로서의 일체감을 키워야 한다"며 "우리 인간 세계는 너무나 상호 의존적이어서 두 국가 간의 전쟁은 필연적으로 타국에도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다. 이것이 우리가 평화로운 세상을 만들어야 할 이유"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희망을 잃지 말아야 한다"며 "지난 20세기는 전쟁과 유혈 사태의 반복이었다. 21세기는 대화의 세기로 나아가야 한다"고 촉구했다.

한편 전쟁 발발 이후 연일 우크라이나 민간인을 포함한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고, 우크라이나 국민들은 국경을 빠져나가 타국 난민 대피소 등에 머물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3월 2일 기준 68만 명 이상이 우크라이나를 떠나 유럽으로 향한 것으로 집계됐다.

박정현 객원기자

우크라이나 위한 종교 초월한 기도

매체 '부디스트도어' 사설 통해
한 달간 철야기도 한 불자 소개
"종교가 중간자 역할 해야" 강조


성 미카엘 황금 돔 대성당 앞에서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불교도들의 모습. **출처=부디스트도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에 대한 전 세계인들의 우려가 쏟아지는 가운데, 불교계에서도 전쟁 종식과 우크라이나의 평화를 기원하는 목소리가 확산되고 있다.

불교 인터넷 매체 부디스트도어(Buddhist Door)는 3월 2일 홈페이지에 '불교도의 시각: 종교를 초월한 우크라이나를 위한 기도'라는 제목의 사설을 통해 "우크라이나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은 매우 끔찍하고 비현실적이다"라며 우크라이나를 향한 불교도들의 관심을 촉구했다.

해당 매체는 먼저 키예프 중심부에 위치한 기독교의 랜드마크 앞에서 전쟁 발발 약 한 달 전부터 이미 평화 기원철야 기도를 올린 불교도들을 소개했다.

해당 매체는 "전쟁 속에서 1108년경 설립된 성 미카엘 황금 돔 대성당(St. Michael's Golden-Domed Monastery) 앞에서 기도하는 불교도들의 모습은 인상적일 수밖에 없다"며 "평화 철야 기도를 집전한 승단의 준세이 테레사와(Unsei Terasawa) 스님은 러시아 침공 전 우크라이나 내 불교도들과 함께 카르파티아 산맥으로 대피할 수도 있었지만, 그렇게 하지 않았다. 성직자에 대한 경외심을 불러일으키는 대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전 세계는 탈냉전 시대의 붕괴, 우크라이나의 파괴, 러시아에 대한 각국의 가혹한 경제 보복 등으로 인해 공포에 떨고 있다"며 "이번 전쟁은 특히 우크라이나 정교회와 러시아 정교회 간 에큐메니즘(ecumenism:그리스도교를 하나로 통합하려는 정신 및 그 사상)에 상당한 파급력을 미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해당 매체는 "종교인들은 '중간자'로서 어떻게 협상을 일으킬 수 있는지, 이견을 어떻게 공감으로 변화시킬 수 있을지를 생각해야 한다"며 "우리는 인내심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박정현 객원 기자

인등생산 전문기업

금륜사

30여년 축적된 원목제품 생산

노하우와 장인정신으로 유수의 사찰과
맞춤제작 인연을 맺어 오고 있습니다.

※ 무상 A/S 2년 보장합니다.

경기도 포천시 송선로 149번길 48

전화 010-3781-2460 / 031-534-0048

팩스 031-532-2468

